

# 부산 “이번엔 우리가 캐스팅보트” 대구 무너진 보수 아성, 표심 표류



‘시장민심’은 밀바닥 시민정서를 가장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곳이다. 대선이 한달여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당은 밀바닥 민심 집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 자갈치시장 모습. /부산일보=김병집 기자

## 부산

부산은 19대 대선 양강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남창초등-경남중-경남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동래초등-중앙중-부산고)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다.

여기다 부산은 역동적인 표심으로 역대 대선에서 항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왔던 도시이기도 하다. 부산의 선택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대선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9일 수영구 광안리 인근에서 서면 방향으로 가기 위해 탄 택시에서 기사 이영욱(56) 씨는 “요즘 택시를 타는 승객들은 대체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보다는 반대하는 후보를 욕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후보들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인해 유권자들 역시 특정 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보다 ‘안 돼야 하는 이유’에 더 관심을 가지는 듯했다.

이 씨는 또 “승객들은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한다”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은 존재감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서면 지하철역에서 만난 회사원 이정우(37) 씨는 “나를 포함해 20~40대 중반 유권자 중에서는 문 후보 지지 성향이 높은 것 같다”면서 “문재인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 후보를 선택하면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다 보니 그 대안으로 안철수 후

## 20~40대 문재인 선호

### 보수층은 안철수에 쏠려

### 80대 “그래도 홍준표”

### 호남과 역선택 가능성도

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대의 의견을 듣고 싶어 부산 동의대 학교로 향했다. 대학 지천과 내 식당에서 나오는 김나연(23·임상병리학과) 학생은 “정치에 관심 없었던 학생들도 이번 대선 이 탄핵 등 큰 이슈 과정에서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며 “학생들은 문재인 아니면 안철수 후보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고향이 부산인 점을 묻는 질문에는 “안 후보도 부산이냐?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라며 놀라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서부산권인 사상구 엄곡시장에서 부식 거리를 사러 왔다는 유재혁(82) 어르신은 선거 얘기에 “나이 든 사람들은 요즘 정치 얘기가 잘 안 한다. 그래도 홍준표 찍어야 한다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30일 만에 뒤집겠다”라고 되물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구도 사이에 언급을 꺼리고 있는 보수 지지층도 상당함을 느낄 수 있었다.

유재혁 어르신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이며 “이북부터 간다 하니 안

찍는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지승호(78) 어르신은 “안철수가 검증된 게 뭐가 있느냐. 당도 호남중심의 당인 데다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박지원 같은 사람이 다 해 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혀를 찼다.

거리로 돌며 만난 시민들 중 이름을 밝히길 꺼리는 많은 유권자가 있었다. “대선에 관심이 있지만 찍을 사람이 없다”는 답이 상당히 많았다. “문재인, 안철수 중 호남에서 어떤 후보를 미나냐에 따라 지역에서는 역선택 가능성도 있다”는 전략적인 분석을 내놓는 목소리도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칠어지는 문재인-안철수 양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 공방에 짜증을 내는 목소리도 많다. 수권 능력을 바탕으로 정쟁과 비전으로 대결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바라기보다는 상대방 헐뜯기와 권력 다툼 등 전형적인 구정치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달라진 게 뭐 있나” “짜우기만 하지 국민을 위해 뭘 하겠다는거냐” 등의 냉소적인 반응과 “이렇게 갈거리 찢어져 대선이 끝나면 나라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나라를 걱정하는 소리도 적지 않았다.

대선이 초입기에 들어간 시점에도 시민들은 일상에 바쁜 모습들이었다. 하지만 무심한 듯하지만 후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면서 표심을 결정해 가고 있었다. 여전히 후보들은 시민들의 높은 표심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듯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부산일보 서준형·이현우 기자 jumpjump@

## 대구

### “문재인 서민 이해할 후보”

### “덜 좌파적인 안철수 지지”

### “실수 좀 했다고

### 자식을 버릴수 있나”

‘5·9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방향을 고집했던 대구·경북(TK) 표심은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층심 표심에서부터 죽어도 문재인은 안된다라는 심리가 반영된 전략적 선택, 이번엔 바뀌야 한다는 아권을 향한 손짓까지 대선 때마다 한 방향으로 쏠렸던 TK 표심이 분산되고 있다.

보수의 구심점이었던 TK 표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파면·구속되고, 보수세력이 둘로 갈리며 궤멸 위기에 몰리자 갈 곳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 택시기사 민부기(47) 씨는 “문재인 후보는 가시밭길인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어 왔기에 서민들을 잘 이해하고 고통을 덜어줄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평생을 대구에서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문재인을 찍겠다”고 했다.

이명규(56) 경영택스 대표는 “대한민국 적폐를 깰 책임자인 문재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배기하(35) 변호사도 “이제껏 보수 후보에게 투표를 했지만 이번만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문 후보 손을 들어줬다.

경선과정에서 안희정 도지사가 문재인 후보에게 패하고 홍준표 후보가 지지세 확장에 한계를 드러내자 TK의 시선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향하고 있는 기류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대구 서문시장 씨앗호떡 상인 조대준(49) 씨는 “패거리 정치를 해온 문재인은 일단 안된다는 생각이다. 주변에 친구들도 사표는 방지해야겠고 문재인 되는 건 막아야 하다 보니 덜 좌파적인 안철수를 찍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귀띔했다. 이상호 경대연합외과 원장은 “대구 쪽 분위기는 아무래도 문재인은 안된다는 게 지배적인 만큼 안철수에게 표를 주겠다”고 했다.

구미에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숙(47·여)씨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줄 생각이이다. 이번 선거에는 보수 후보를 지지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 차선책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제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안 후보를 찍을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포항에 사는 주부 김복선(46·남구 오전



지난 8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대구시민들. 보수층 민심을 가능해 볼 수 있는 대구 서문시장은 대선 후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매일신문=김영진 기자

읍)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 대통령 선거 자체가 의미가 퇴색해 버렸다”면서 “그래도 선출해야 한다면 때가 덜 묻은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4차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이를 가장 잘 대처해 나갈 것 같으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은 신뢰감이 든다”면서 “또 안 후보라면 대기업 유착이라던지 전제별 성향이 아닌 중소기업과 서민들 아픔을 잘 보듬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에는 그래도 한국당이던 정서도 강하게 표출됐다. 대구시 공무원 A(58)씨는 “대구의 정치 뿌리가 자유한국당 아니냐”며 “한국당이 잘 못한다고 국민의당, 민주당 후보를 찍는다는 것은 자식이 실수 좀 했다고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언성을 높였다.

교사 박모(42)씨는 “진주의료원 사건과 평소 언행을 보니 아닌 건 아니라고 결론 내려 있어 보이는 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게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세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대선과는 달리 TK에서 확실하게 지지할 후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대구에서 유승민 후보가 배신자라는 프레임에 고정하고 있는데 이런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구미중앙시장 상인 장철진(58)씨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가운데 한 후보에게 표를 줄 생각이이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진보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절한 균형과 견제를 위해 보수 세력이 이대로 무너져 내리게 두고 볼수 없는 만큼 두 후보 단일화가 되면 죽기 살기로 보수 단일 보수후보를 지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구 동성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전철호(28) 씨는 “청년 취업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는 나라인데 누가 되든지 바뀌겠는가? 현재로서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투덜거렸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매일신문 임상준·박상규기자 news@

**1 국가대표 1등 농수산물, 해남이 만듭니다!**

전국 최대 경지면적! 전국 최대 친환경 인증면적!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 해물맛고 지란 해남배추-절임배추 3,887ha • 전국 최대!
- 게르마늄 황토밭 해남고구마 1,554ha • 전국 최대!
- 소비가자 붉은 명품 해남쌀 22,754ha • 전국 최대!
- 청정평골바다가 키운 김-지민 9,481ha • 전국 최대!
- 한겨울 비터민의 보고 세월나물 19.5ha • 전국 최대!
- 한손에 쏙 영양만점 미니밤호박 39.6ha • 전국 최대!

해남군